

8

대구·경북의 아름다운 산과 강 이야기



【8장을 열며】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산과 강과 들판은 소중한 자연이다. 팔공산, 비슬산, 금호강, 낙동강 등 대구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온 자연에 대해 알아보자. 또 경북에 있는 산과 강과 들판도 살펴보자.

1. 오래오래 대구와 함께해 온 산, 팔공산
2. 대구의 산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
3. 경북에 있는 산, 강, 들판 이야기

1

오래오래 대구와 함께해 온 산, 팔공산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를 대표하는 산인 팔공산의 자연과 그곳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자. 또 팔공산과 관계 있는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중악 팔공산

신라시대부터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던 산

높이 1,192m의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산이다. 신라 사람들은 팔공산을 ‘중악’ 또는 ‘공산’이라고 불렀다. 중악이란, ‘나라(신라)의 중앙에 있는 큰 산’이라는 뜻이다.

신라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신이 산다고 생각하는 5개의 산을 성스럽게 여겼고, 특별히 5악이라 불렀다. 5악은 동악(지금의 경주 토함산), 서악(계룡산), 남악(지리산), 북악(태백산) 그리고 중악(팔공산)이었다. 팔공산이 중악이었다는 사실은 팔공산이 있는 대구가 신라 영토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팔공산은 웅장한 산이다.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 두 봉우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하늘로 향해 있다. 신라의 법흥왕이 527년 불교를 공인한 후부터 5악 중 하나인 팔공산은 신라 불교의 성지가 되었다. 팔공산 곳곳엔 신라의 번영을 빌기 위한 절이 세워졌다. 팔공산에서 꽃핀 찬란한 불교문화는 대구의 문화를 더 풍성하게 해주었다.

오늘날에도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이요, 산이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의 심벌마크에도 팔공산이 표현되어 있다. 또 대구의 많은 학교 교가에는 ‘드높이 솟은 팔공산’, ‘팔공산 정기 어린’같이 팔공산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새벽녘의 갯바위 풍경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글을 통해서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그중 대구 출신의 문신 서거정이 표현한 공산 8경(팔공산에서 특히 경치가 아름다운 8곳)이 유명하다. 그가 선정한 8경 중 제1경은 무심봉(최고봉인 비로봉의 다른 이름)의 흰 구름이었다. 이 경치를 서거정은 '하늘 맞닿은 산 정상에 오르니, 발아래 두둥실 구름 떠다니네'라고 표현하였다. 나머지 7경은 다음과 같다.

- 제2경** 제천단에 내리는 여름 소낙비(제천단은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 제3경** 적석성의 밝은 달(적석성은 팔공산 군위 방면에 있는 성이다.)
- 제4경** 백리령에 쌓인 눈(백리령은 가산산성에서 갯바위까지 동서로 뻗은 능선이다.)
- 제5경** 금병장의 단풍(염불적봉 아래 병풍바위의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 제6경** 부도암의 폭포(부도암은 동화사에 속한 암자이다.)
- 제7경** 약사봉의 새벽별(약사봉은 갯바위가 있는 봉우리이다.)
- 제8경** 동화사의 종소리(깊고 맑게 울리는 종소리는 귀를 기울이면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부인사



팔공산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는 동화사 외에도 산 곳곳에 문화재가 있다. 문화재 종류도 다양하다.

천년의 역사를 넘긴 팔공산의 여러 절

팔공산에는 493년에 세워진 동화사 외에 천년 역사를 넘긴 오래된 절이 여럿 있다.

은해사는 809년에 세워진 절로 동화사와 더불어 팔공산을 대표하는 큰 절이다. 보물 제1270호인 괘불 탕화, 대웅전 아미타삼존불 등 수많은 문화재 말고도 조선 후기의 명필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된 편액을 5점이나 보유하고 있다.

과계사는 팔공산 서쪽에 있는 절로 804년에 창건되었다. 과계사라는 절 이름은 팔공산에서 흘러내려 오는 아홉 갈래의 물줄기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팔공산 남쪽에 있는 부인사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절이다. 고려시대에 이 절에 대장경을 만들어서 보관하였기 때문이다. 부인사의 대장경은 몽골의 침략 때 소실되었다. 또 부인사는 선덕여왕을 모신 승모전을 두고 해마다 선덕여왕승모재를 지내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칠곡에 있는 송림사는 544년에 세워진 오래된 절이다. 이곳엔 벽돌로 만든 5층탑(보물 제189호)이 있는데, 1959년 탑 복원공사를 할 때 탑 속에서 사리를 모신 장엄구 등 여러 유물이 발견되었다.



가산산성

국보로 지정된 영산전 & 삼존석굴

은해사는 팔공산 동쪽 자락인 영천 지역에 있는 절이다. 은해사에 속한 암자인 거조암에는 국보 제14호로 지정된 영산전이 있다. 거조암의 중심 건물인 영산전은 526구의 석조나한상을 모시고 있어 유명하다. 고려 우왕 원년(1375)에 처음 지어진 건물로 고려 말, 조선초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팔공산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여러 지방에 뻗어 있다. 그중 하나인 경상북도 군위군에는 국보 제109호인 삼존석굴이 있다. 지상 6m 높이의 암벽을 뚫어 만든 인공 석굴 안에 세 구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관봉 석조여래좌상(갯바위)

갯바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불상 조각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속한 팔공산 지역에 있다. 해발 859m 지점에 있는 약 6m 높이의 불상으로, 머리 위엔 갯 모양의 자연석이 올려져 있다. 근엄한 얼굴이 특징인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불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 전해 내려와, 요즘도 시험기간이면 합격을 비는 사람들로 불상 앞이 비좁을 정도이다.



조선의 중요한 군사기지였던 가산산성

팔공산의 지맥과 연결되어 있는 가산은 901m의 높은 산이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가산산성(사적 제216호)은 임진왜란(1592년)과 병자호란(1636년)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겪은 조선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쌓은 성이다.

이 산성이 있는 가산 지역에선 1950년 한국전쟁 때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다.



대구 지식플러스

왕이 지은 추모의 노래 〈도이장가〉

고려시대의 노래 중에 왕이 직접 지었다는 〈도이장가〉가 있다. 도이장가란 두 명의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왕건을 대신해 죽은 신승겸과 김락을 기리는 노래이다. 예종은 팔관회 때 두 장수를 추모하는 가면극을 보고 감동해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이 노래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님을 온전히 하시는 마음은
하늘가에 미치시니
낮은 가셔도 삼으신
벼슬만큼은 또 하는구나.
오오 돌아보건대 그때의
두 공신이며
오래되었으나 곧은 자취는
나타나는구나.”



사명대사 진영



팔공산의 역사 인물 이야기

임진왜란 때 팔공산에서 의병을 이끈 사명대사 유정

1544년 태어난 유정은 1559년 오늘날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직지사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유정은 승려들로 이루어진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일본에게 빼앗긴 평양성을 되찾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 때 유정이 지휘하던 승병 부대는 한때 본부가 동화사에 있었다. 유정은 조선 정부군의 지휘자, 대구의 의병 지도자들과 힘을 모아 대구를 지키는 데 힘썼다. 또 유정은 전쟁이 끝난 후인 1604년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군이 끌고 간 조선인 포로 3000여 명을 무사히 데려오는 공로를 세웠다.

팔공산에서 왕건의 목숨을 구해준 장수 신승겸

927년 팔공산에서는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지휘하는 군대가 격돌했다. 후백제의 승리로 끝난 이 전투에서 위기에 처한 왕건을 살린 것은 신승겸과 김락 두 명의 부하 장수였다. 왕건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두 장수는 고려시대에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왕건은 신승겸을 추모하여 팔공산에 지묘사라는 절을 세워 신승겸의 명복을 빌었다.

오늘날 팔공산에 있는 신승겸 장군 유적지는 대구광역시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팔공산이 품은 아름다운 산길, 여기는 올레길입니다

팔공산에는 아름다운 올레길이 있다. 8개의 정규 코스는 다음과 같다.



1 코스 북지장사 가는 길

시인의 길(현대시 육필공원) → 돌집마당 → 대구방짜유기박물관 → 도장마을 → 북지장사 기점
→ 북지장사(왕복 코스). 5km

2 코스 한실골 가는 길

신승겸 장군 유적지 → 한실골 가는 길 → 쉼터 → 소원언덕 → 전망대 → 용진마을 →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 파계사. A코스(9.4km), B코스(5.5km).

3 코스 부인사 도보 길

공산초등학교 → 미곡마을 → 용수동 당산 → 수태지 → 낙엽 있는 거리(팔공산순환도로) →
부인사. 9.8km.
이 중 낙엽 있는 거리는 단풍이 들면 특히 아름다운 곳이다.

4 코스 평광동 왕건 길

평광동 입구(효자 강순항나무) → 평광초등학교 → 평광지 → 모영재(신승겸장군영각유허비)
→ 재바우농원(최고령 사과나무가 있는 곳) → 첨백당 → 평광 버스 종점. 7.4km.

5 코스 구암마을 가는 길

내동 버스 정류장 → 굴다리 → 내동 보호수 → 추원재 → 성재서당 → 미대동 들녘 → 구암마을.
6.2km. 미대동의 들녘은 벼가 익는 가을철 황금빛 풍경이 짝 아름답다.

6 코스 단산지 가는 길

불로동 고분군 공영주차장 → 불로동 고분군 →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 봉무공원 → 단산지
→ 만보산책로 → 봉무동 마을길 → 강동새마을회관. 7.2km.

7 코스 폭포골 가는 길

탑골 등산로 → 깔딱고개 → 상상골 → 동화사 경내 → 약수암 가는 길 → 폭포골 왕복 →
동화사 봉황문. 8.2km.
깔딱고개는 200여 개의 나무계단으로 이루어진 고개다.

8 코스 수태지 계곡 길

동화사 버스정류장 종점 → 수태지 샛길 → 수태골 너럭바위 → 부인사 등산로 → 부인사 →
팔공산순환도로 가로수길 → 동화사 종점 버스 정류장. 7.1km.

2

대구의 산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팔공산 외에도 대구에는 아름다운 산이 많이 있다. 비슬산을 비롯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산에 얹힌 역사, 지명 유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슬산 대견사 삼층석탑

대구를 품은
또 하나의 명산, 비슬산

경치가 빼어나 이름난 산을 명산이라고 한다. 대구시 달성군과 경상북도 청도군에 걸쳐 있는 1,084m의 비슬산은, 고려시대의 승려인 일연 이야기와 함께 한국 최대의 참꽃 군락지가 있어서 더욱 유명하다.

비슬산과 일연의 『삼국유사』

고려와 조선시대에 비슬산은 포산이라고 불렸다. 고려시대인 1227년, 한 승려가 이 산에 왔다. 그는 얼마 전 고려의 수도 개경(지금의 북한 개성)에서 열린 승려 과거에서 1등으로 합격한 일연이었다. 그가 개경을 떠나 포산에 온 이유는 불교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였다. 일연은 오랫동안 비슬산에 있는 절과 암자에 머물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였다.

당시 고려의 백성은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잦은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연은 오랜 전쟁에 지친 고려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이후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부터 불교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진 역사책 『삼국유사』는 1281년경 완성되었다.

『삼국유사』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연표다. 2권은 고조선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고려 등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3권과 4권은 불교 발전에 업적을 남긴 승려와 불교 문화제 이야기, 5권은 유명한 승려들의 행적과 효자 효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비슬산의 가을 역사

봄날의 참꽃, 가을날의 갈대가 다 아름다운 비슬산

비슬산에는 용연사, 유가사처럼 역사가 오래된 절을 비롯해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그와 함께 비슬산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해마다 봄이면 비슬산 정상을 진홍빛으로 물들이는 참꽃 군락지가 유명하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진분홍의 천상화원’이라고 자랑할 정도인데, 이 멋진 봄 풍경을 보기 위해 매년 약 10만 명 정도가 비슬산을 찾는다.

봄 풍경이 다가 아니다. 산기슭과 능선을 따라 역사가 물결치는 가을 비슬산의 모습도 놓칠 수 없다. 여름은 여름대로 매력적이다. 여름 비슬산의 매력은 하루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발 1,058m의 조화봉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높은 봉우리가 둘러싼 곳에 들어서 있어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숲속 휴식 공간이다.



대구
지식플러스

『삼국유사』는
왜 위대한 역사서일까?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시작을 설명해 준 소중한 기록이다. 또 『삼국사기』에 없는 가야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어 더없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 역사서이면서 민간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는데, 민간에서 전해지는 설화나 다양한 민속과 풍습, 마을의 유래, 자연환경을 포함해 승려와 절, 탑과 불상에 관한 이야기, 또 고대 시가인 향가 14수를 실어 한국 고대문학을 풍성하게 한 공로도 있으니,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보물이라 할 만한 책이다.



대구 시민의 휴식처, 앞산

대구의 여러 산에
깃들어 있는 역사와 전설

대구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간 앞산

비슬산의 산줄기가 북서쪽으로 뻗은 곳에 높이 660m의 산이 솟아 있다. 대구 사람에게 팔공산 못지않게 친근한 산인 앞산이다. 일제 때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대구 지도에 전산(前山, 앞산)이 등장한 뒤 그대로 굳어져 쓰인다는 설과 조선시대부터 경상감영 앞쪽에 있다 하여 앞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성불산이라고도 불렀다.

1971년에 앞산공원이 조성되었다. 고산골, 안지랑골, 용두골 같은 경치 좋은 곳이 많아, 과거 대구 학생들의 단골 소풍장소였다. 지금은 앞산전망대를 비롯해 빨래터공원, 해넘이전망대, 케이블카 등이 설치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돌거북 전설이 전해 오는 연귀산

대구시 중구 봉산동에 있는 대구제일중학교에는 거북바위가 있다. 바위 속 거북이 머리는 앞산이 있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꼬리는 팔공산이 있는 북쪽을 향하고 있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이 연귀산이다.

연귀산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대구의 전산(그 고장을 지켜 준다고 믿었던 산)으로 우러러보던 산이었다. 연귀산에 있는 거북바위는 대구에 처음 도시가 형성될 때 지맥(산맥의 원줄기에서 갈려 나간 줄기)이 잘 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세운 것이라고 한다.



용암산성 가는 길

임진왜란 때의 격전지였던 용암산

용암산은 팔공산과 금호강 사이로 뻗어 내려가는 북서-남동 방향의 산줄기 중간에 솟아 있는 높이 367.7m의 산이다

용암산 정상에는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졌다는 둘레 약 1,300m의 용암산성(대구광역시 기념물 제5호)이 있다. 다소 평평한 정상에 비해 동서 양쪽이 급경사를 이루는 산세인데, 이곳에 산성이 세워진 이유는 용암산이 대구에서 경산-경주-포항을 잇는 길목에 있고, 넓은 지역을 관찰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용암산성은 임진왜란 때 대구의 의병들이 왜군에 맞서 싸웠던 전적지이다. 성 안에는 옥천이라는 샘이 있다. 대구의 의병들이 왜군에 굳세게 저항하며 싸우자 왜군은 용암산성에 이르는 길을 막고 지구전을 벌였다. 시간이 흘러 산성에 물이 부족해지자 의병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산성 안의 땅을 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 어느 순간 파내려 가던 땅 아래에서 시원한 물이 솟아올라듯 솟아오른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대구 지식플러스

산과 관계 있는 대구의 동네 이름

대구의 동네 이름 중엔 산이 들어가는 곳이 여럿 있다. 대구시 중구의 봉산동은 예로부터 신성한 새로 여긴 봉황이 앉은 산 아랫마을이어서 봉산동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에 나오는 봉산은 거북바위가 있는 연귀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은 대구 도심에 있는 162m의 작은 산인 아미산 남쪽에 있는 동네여서 남산동이 되었다. 또 대구시 달서구의 용산동은 대구 서쪽의 와룡산(용이 누워 있는 모양의 산) 근처에 있어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대구 시민의 젖줄 신천



신천의 물길을 바꾼 판관 이서

그 옛날 신천은 홍수가 나면 범람해서 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조선 정조 때 대구의 판관(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벼슬) 이서는 주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살펴 자신의 돈을 들여 제방을 쌓고 신천의 물길을 돌렸다. 이후로는 홍수의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에 감동한 주민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제방을 '이공제'라 칭하고 비석을 세웠다. 현재 대구 상동 용두방천 맞은편 이서공원에 비석이 보존되어 있다.

신천→금호강→낙동강,
비슬산에 떨어진
빗방울의 여행

대구 시내를 흐르는 하천인 신천의 발원지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비슬산 지역이다. 산에서 시작된 냇물은 하류로 흘러 비슬산 근처 백록마을을 지나, 녹동서원이 있는 우록마을을 지나서 수성구 지역으로 흘러간다.

수성구 과동을 지나면서 신천은 대구의 중심 지역에 가까워진다. 신천의 다리를 통과하는 자동차와 사람의 숫자도 늘어난다. 상동교, 중동교, 대봉교, 침산교 등 신천의 다리 이름은 신천이 지나는 주변 동네 이름에서 따온 것이 많다.

칠성시장 근처인 칠성교를 지나면서 신천은 하류에 가까워진다. 몇 개의 다리를 지나친 신천의 물은 신천의 마지막 다리인 대구시 북구 침산교를 지나 금호강에 합류한다.

금호강은 경상북도 포항 지역의 산에서 발원하여 영천시, 경산시를 거쳐 대구로 흘러드는 강이다. 금호강은 신천뿐만 아니라, 팔공산에서 발원한 불로천, 대구시 서구를 흐르는 달서천 등 대구의 여러 하천 물을 받아들이며 대구의 북쪽을 지나 서쪽을 향해 흐른다.

금호강이 끝나는 지점은 대구시 달서구 성서 지역과 화원읍에 있는 달성습지이다. 이곳에서 금호강은 낙동강과 합류해 경상북도 고령군을 거쳐 경상남도 여러 지역을 적신 뒤 남해바다에서 긴 여행의 끝을 맺는다.

현재 도립공원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자는 논의를 살펴보고,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려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도 조사해 봅시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13일 경상북도 공고 제78호에 따라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 대구와 경북이 행정
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팔공산도립공원도 경상북도 91.487km², 대구광역시 30.59km²로 관리 구역이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습니다.

2015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간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 기본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팔공산은 신규 국립공원 후
보지 가운데 자연경관, 역사·문화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다양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신성한 산으로 제사의 장소가 되었
으며, 동화사, 은해사, 파계사, 갯바위, 공산성, 왕건 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사찰과 문화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당장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지정에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팔공산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현재 팔공산도립공원의 77.9%
가 개인 사유지인데 재산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이 여러 시와 군에 걸쳐
있는 까닭에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역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대하는 자치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때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합의된 보상안을 마련
해야 할 것입니다.



(봉산동 제일중학교 본관 앞)

연귀산은 대구 미술 1번지인 봉산문화거리 근처에 있다. 해발 65m 높이인데,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높았다고 한다. 근처에는 대구의 대표적인 유교문화재인 대구향교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경상감영 옆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대구 도심에서도 거북바위를 구경할 수 있는데, 중앙로에 연귀산 거북바위를 본뜬 조형물이 있다.

3

경북에 있는 산, 강, 들판 이야기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땅이 넓은 경상북도에는 경치 좋은 명산이 많다. 경북에 있는 유명한 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또 경북에 흐르는 큰 강인 낙동강과 경북 곳곳에 펼쳐져 있는 평야에 대해서 알아보자.



태백산맥의 중심 태백산

많은 문화재와 전설을
간직한 경상북도의 명산

태백산맥의 중심에 우뚝 솟은 태백산

한반도 산줄기의 등뼈라 할 수 있는 태백산맥의 중심이 되는 산이 태백산이다. 태백산의 산줄기는 서남쪽 방향으로 다시 큰 산줄기를 뻗어 내리는데, 태백산맥보다 작다고 소백산맥이라 이름을 붙였다.

높이 1,567m의 태백산은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태백시에 걸쳐 있다. 이 산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산이었다. 매년 태백산 천제단에서 고조선을 세운 단군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중국에서 피난 온 왕의 전설이 전해 오는 주왕산

청송군에 있는 높이 721m의 주왕산은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특히 3개의 아름다운 폭포를 이어 주는 산길은 주왕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왕산이란 이름은 옛날 옛적 중국의 왕이 이곳으로 피란을 온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신라 왕자 김주원이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주왕산 기슭에 있는 호수인 주산지는 화려한 풍광이 유명하다. 여러 번 영화와 광고의 무대가 되었으며 많은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청송 주산지

신라의 명필 김생, 고려 공민왕의 이야기가 전해 오는 청량산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높이 870m의 청량산은 소금강(작은 금강산)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름다운 산이다.

청량산 곳곳엔 많은 역사와 전설이 서려 있다. 신라 때의 명필 김생이 수련을 하였고 전해 오는 김생굴이 있고, 고려시대 말기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피란 온 공민왕이 잠시 머물렀다 하여 공민왕을 모신 사당도 있다. 조선의 유명한 유학자인 이황은 안동에서 가까운 청량산을 무척 사랑하여 자신을 '청량산인(청량산의 사람)'이라 불렀다.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있는 경주 남산

경상북도 경주시의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남산은 466m로 그리 높지 않지만 산 곳곳에 불상과 탑, 절터가 많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린다. 남산에 불교 문화재가 많은 것은 불교가 중흥한 통일신라시대에 사람들이 이곳을 부처님이 계신 신령스러운 산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적 제1호인 포석정이 남산 기슭에 있으며, 근처 지역까지 포함하면 절터만 112곳, 탑이 61기, 불상도 80개나 남아 있다. 또한 산 근처에는 신라의 왕이나 귀족이 묻혔던 무덤도 다수 남아 있다.



우리 고장 지식 플러스

많은 명산이 있다

경상북도의 각 시와 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들이 있다. 포항시와 영덕군에 걸쳐 있는 내연산은 폭포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상주시와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청도군과 경상남도 밀양시에 걸쳐 있는 운문산에는 비구니 사찰로 유명한 운문사가 있다. 이 외에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에 있는 조령산, 경상북도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에 걸쳐 있는 황악산, 한국 최초의 도립공원인 구미시의 금오산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낙동강 하류의 풍경(달성보 근처)

대구·경북의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킨
고마운 강 낙동강



우리 고장
지식 플러스

지역의 경계선이 된 낙동강

1407년 조선 정부는 경상도를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로 나누었다. 이때 경상좌우도의 경계가 된 것이 낙동강이었다. 낙동강 서쪽 지역을 경상우도, 낙동강 동쪽 지역을 경상좌도로 한 것이다. 1519년 조선 정부는 경상좌우도를 다시 경상도 1개 도로 통합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군사적인 목적에서 잠시 경상좌우도로 나누었다. 경상도가 경상남도, 경상북도로 나뉜 것은 전국을 13개 도로 나눈 1896년이였다.

낙동강은 대구·경북의 역사, 문화, 경제에 큰 영향을 준 강이다. 낙동강의 이름 유래 등 낙동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525.15km

낙동강의 길이는 525.15km이다. 이 긴 강이 처음 시작되는 곳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사이에 있는 태백산 지역이다. 낙동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과 더불어 한국의 4대강으로 불린다.

낙동강이란 이름은 경상북도 상주시의 옛 이름 중 하나인 낙양에서 유래한다. '낙양의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다. 또 고대 경상도에 있었던 가야의 또 다른 이름, '가락의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내성천, 위천, 금호강...

낙동강에는 많은 지천이 있다.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내려온 낙동강은 남쪽으로 흘러 안동 부근에서 제1지류인 반변천의 물을 받아들인다. 영양군에서 발원한 반변천은 낙동강의 지천이라 하지만 길이가 약 113km나 되는 큰 강이다. 이 강은 청송군을 지나 안동 부근에서 낙동강과 합쳐진다.

반변천 외에도 큰 하천이 여럿 있다. 내성천은 봉화군에서 발원하여 문경 지역에서 낙동강에 흘러든다. 위천은 군위군에서 발원하여 의성군 지역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이다. 포항에서 발원한 금호강은 대구에서 낙동강에 합쳐진다.



강과 물,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아크문화관

800리 뱃길

조선시대에 대규모 물품 이동은 강이나 바다를 통해 배로 옮기는 것이 편했다. 이때 낙동강 뱃길은 대구와 경상북도의 물류에 생명줄 역할을 하였다. 낙동강 뱃길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경상남도 동래(지금의 부산)까지 약 800리(약 314km)에 달했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강 주변의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같은 도시들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경상도의 농업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강 주변에 넓게 평야를 만든 것은 물론 농업용수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대구와 낙동강

낙동강은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준 강이다. 오늘날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사문진나루터는 과거 장삿배들이 활발히 오가던 교류의 통로였다. 현재 이 나루터가 있던 곳에는 그때의 역사를 기념하는 사문진역사공원이 있다.

현대에 들어서도 낙동강은 여전히 고마운 강이다. 낙동강의 물은 대구 시민이 마시는 상수원이다. 또 낙동강변 강정 고령보에 2012년 개관한 디아크문화관은 물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다양한 물 관련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산과 강 사이로 펼쳐진 경상북도의 평야

강 주변에는 평야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상북도도 그러한데, 대표적인 평야 몇 곳을 소개한다.

금호평야

금호강이 흐르는 곳에 형성된 이 평야는 동서 길이가 약 50km에 달하는 경북 최대 평야이다. 포도 등 과일을 많이 키운다.

안계평야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평야이다. 낙동강의 지천 중 하나인 위천이 안계평야 근처를 흐르고 있다. 이곳에선 주로 쌀을 생산한다.

풍산평야

안동시에 있는 풍산평야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평야로, 오랜 시간 낙동강에서 흘러내린 흙으로 만들어진 충적평야이다.

이들 평야 외에도 경주 주변에는 안강평야, 낙동강 근처의 상주 지역에는 상주평야가 있다. 또 동해안 근처 영덕군에는 영해평야가 있다.